2017년 업무보고
"튼튼한 경제"

'17. 1. 5(목) 오전 09시 30분 엠바고

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

"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로
튼튼한 경제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"

2017. 1. 5

산 업 통 상 자 원 부

목 차

Ⅰ. 지난 4년간의 성과 ····· 1

Ⅱ.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····· 4

1. 수출 회복 기조 정착을 통한 수출 플러스 전환 ····· 7

2.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····· 14

3. 중소·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 제고 ···· 23

4. 에너지 안전 및 친환적 수급기반 구축 확보 ····· 26

Ⅲ. 기대효과 ····· 31

Ⅰ. 지난 4년간의 성과

◇ 수출구조 혁신 및 외국인투자 증가세 시현

□ **(수출)** 세계 **경기**와 **교역 둔화, 低유가** 속에서도 **수출구조 혁신**을 통해 수출 **감소세**를 **최소화**하면서 **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**

* 수출증가율(%) : ('13) 2.1 → ('15) △8.0 → ('16.1Q) △13.6 → (2Q) △6.7 → (3Q) △5.0 → **(4Q) 1.9**
* 우리 제품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(%) : ('12) 3.0 → **('16.3Q) 3.12**

○ 중소기업·소비재·전자상거래 등의 수출을 확대하여, 대기업·일부품목에 **편중된 수출**을 **안정적 구조로 개선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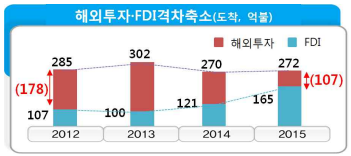
○ **중국, 베트남, 호주** 등과의 FTA로 FTA 시장 규모를 **세계 GDP 대비 77%로 확대**하고, **멕시코, 인도** 등으로 **수출시장**도 **다변화**

* FTA 체결 GDP 규모(%) : ('12) 55.2 → ('15) 77.0 (칠레(88), 페루(80)에 이어 3위, 총 52개국)
* 우리 수출 중 비중('12 → '16, %) : (베트남) 2.9 → 6.6, (멕시코) 1.6 → 2.0, (인도) 2.2 → 2.3

□ **(외국인투자) 2년 연속 사상 최대인 200억불**(신고기준) 이상 투자 시현

* 외국인투자 규모(신고기준, 억불) : ('12) 163 → ('15) 209 → ('16) 213

○ **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확대**('12. 59% → '16. 73%), **R&D 센터**(6개)·**글로벌 HQ**(5개) **유치** 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의 질적 내용도 고도화



◇ 산업체질 개선 및 미래 먹거리 창출기반 마련

□ **(주력산업)** **조선·철강·석유화학** 등에 대한 **경쟁력 강화방안** 마련과 **「기업활력법」 활용** 등을 통해 구조조정과 **사업재편**('16. 15개社)을 촉진

○ 중소·중견 **2,800개社에 스마트공장**을 구축, **4차 산업혁명** 확산기반 마련
(불량률 △27%, 생산성 +25% / 스마트공장(누적, 개) : ('14) 277 → ('15) 1,240 → ('16) 2,800)

□ **(신산업) 규제개선**, R&D·인력 등 **집중 지원**, **융합 플랫폼 구축** 등을 통해 **에너지신산업**·**로봇** 등 신산업의 발전기반 마련



○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전기·자율차, 에너지신산업, 드론, IoT가전 등 **12대 신산업 정책방향**도 **민·관 합동**으로 제시('16.12)

◇ 중소·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토대 확립

□ **(중소·중견기업)** 「중견기업특별법*」 제정('14) 등을 통해 '지원에 안주, 성장을 기피'하는 현상을 완화하여 **중견기업** 중심으로 **산업의 허리를 보강**



*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세제·인력·판로 등의 지원이 일시에 중단되지 않도록 완충구간 신설

○ 역대 최고 수준의 창업·벤처투자 등에 힘입어 **신설법인도 9만개 돌파**

* 벤처투자 추이(조원) : ('03~'07) 3.7 → ('08~'12) 5.1 → ('13~'16.11) 6.9
* 신설법인(만개) : ('12) 7.4 → ('13) 7.5 → ('15) 9.3 → ('16e) 9.5

□ **(소상공인)** 2조원대 소상공인진흥기금 신설('15) 등 **자생력 제고 위주**의 정책으로 자영업 비중이 감소하고 **전통시장 매출도 증가세로 전환**

* 자영업자 비중(무급가족종사자 제외) : ('12) 23.2% → ('15) 21.2%
* 전통시장 매출액(조원) : ('12) 20.1 → ('13) 19.9 → ('14) 20.1 → ('15) 21.1

◇ 에너지 수급 안정과 친환경 정책기조 확립

□ **(수급)** 신규원전(신월성 2호기, 신고리 3호기) 등 전력설비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예비율을 확보하는 등 **만성적 전력난을 해소**



○ 밀양 송전탑,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등 **당면현안도 원만히 해결**

□ **(안전·친환경)**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, 원전 내진보강,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와 신규건설 원칙 제한 등으로 에너지정책을 **안전·친환경** 위주로 전환

Ⅱ.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

기 본 방 향

1 **수출구조 혁신 가속화, 보호무역 확산 적극 대응 등을 통해 수출을 플러스로 확실히 전환**

2 **산업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, 12대 신산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등 4차 산업혁명을 우리 산업에 조기 확산**

3 **중소·중견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, 소상공인 활력도 제고**

4 **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, 중·장기 에너지 수급의 안정 기반도 마련**

9대 중점 추진과제

수 출
- ❶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
- ❷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 안정적 관리
- ❸ 외국인투자 유치의 양적·질적 고도화

산 업
- ❹ 신속한 구조조정 및 제조혁신
- ❺ 12대 신산업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가속화

중소기업 소상공인
- ❻ 중소·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

에너지
- ❼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 대폭 강화
- ❽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
- ❾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

1 수출 회복기조 정착을 통한 수출 플러스 전환

◈ **'17년 수출은 '16년**(-5.9%) **대비 2.9% 증가한 5,100억불 달성**

- **중소·중견기업 수출** ('16) 2,395억불 → **('17) 2,500억불 (+4.4%)**
- **5대 소비재 수출** ('16) 219억불 → **('17) 250억불 (+14.5%)**
- **지식재산권**(기술 등) **수출** ('16e) 111억불 → **('17) 128억불 (+15.6%)**

(1)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

품목 화장품·의약품 등 **소비재 수출**과 **서비스·지재권 해외진출**을 확대하고, OLED 등 **유망품목** 중심으로 **주력품목의 수출회복**도 적극 추진

○ **(소비재)** 5대 소비재 선도기업 밀착지원을 통해 **1천만불 수출 기업 80개**, **글로벌 매출 1조원 브랜드 5개**('16. 2개) 창출

○ **(서비스·지재권)** 「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(관계부처 합동)」을 본격 가동하고, 지재권·S/W 등 **9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 액션플랜** 수립('17.3)

* 지재권, 의료, 콘텐츠, 관광, SW, 물류, 교육, 금융, 유통 등

- 특히, 해외전시회 등 35개 수출 지원 프로그램 중 각 **기업**에게 **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**을 기업 **스스로 선택하는 '수출 바우처'** 제도 도입

○ **(금융)** 중소·중견기업, 수출 초보기업 등을 중심으로 '16년 보다 8조원 늘어난 **총 229조원** 규모의 **무역금융** 지원(무역보험 162조원, 수은 67조원)

- 수출 초보기업 중심으로 **무료 수출보험 지원 대상 2배 확대**(5천개社 → 1만개社)

시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 중심으로 **FTA 네트워크**를 **개선·확대**하고, 지역별 **특성화된 수출전략** 추진

○ **(FTA 개선·확대) 한-인도 CEPA** 개선협상 연내 타결, **한-ASEAN FTA** 자유화율 확대, **한-중 FTA 서비스·투자 후속협상** 추진

- **이스라엘·에콰도르**와 FTA 타결 추진, **MERCOSUR·멕시코**와 협상개시, **EAEU**와 FTA 협상개시 기반 조성, **영국**과 **FTA 예비협의** 추진

- **RCEP**은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적극 모색하여 **조속한 타결을 유도**하고, **한·중·일 FTA** 협상도 가속화

○ **(FTA 활용)** 기존 '원산지 관리'에서 **'시장진출'** 중심으로 전환하고, 미국·중국·EU 등 **주요 FTA 영향분석**을 통해 **시장진출 확대방안** 마련('17.상~)

○ **(주력품목)** 수출 우수기업에 **R&D** 등을 우선 지원하고, **「수출애로 대책반」**을 구성하여 현장 **수출애로를 신속 해결**

품 목		수출('16→'17, 억불, 증가율)	주요 지원계획
소비재	화장품	36 → 44 (+25%)	▸ **한류 연계 수출상담회** 개최(파리·뉴욕 등)
	의약품	34 → 40 (+17%)	▸ 의약품·의료기기 **선도기업 맞춤형 지원**(20개社)
유망 품목	시스템반도체	206 → 217 (+6%)	▸ **中** 가전기업-**韓** 반도체기업간 **공동 R&D 지원**
	OLED	69 → 82 (+20%)	▸ 차량·가전·의료 등 글로벌 **수요기업과 구매 교류회**
	SSD	37 → 42 (+13%)	▸ 미국, 독일 등 **유망 전시회 참가** 지원
	태양광	36 → 38 (+6%)	▸ **해외 프로젝트 수주**를 위한 타당성 조사(F/S) 지원
	이차전지	27 → 34 (+26%)	▸ **배터리 시험평가 기반구축** 등 해외인증 지원

주체 **중소·중견 수출기업수** 확대, 수출유망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 **수출 2,500억불**을 달성, **대·중소기업간 균형있는 수출 추진**

○ **(수출기업화)** 수출 전문위원(PM) 확대(200 → 250명), 지자체 수출지원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**3.5만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** 추진('16. 9.4만 → '17. 9.7만개社)

○ **(마케팅)** 한류스타 연계 **해외상품전 5회 개최** 등 마케팅 지원을 **30% 이상 확대*** 하고, 해외전시회 한국관, 무역사절단 통합 운영 등으로 지원효과도 제고

* ('16) 2,878억원 / 25,310개社 → **('17) 3,729억원 / 32,305개社**

○ **(신흥시장)** Post-Oil 산업발전전략을 추진중인 **중동은 우리의 기술·경험과 중동의 자본**을 결합한 **합작투자, 프로젝트** 수주 및 **기자재** 수출 확대

- EU 등 선진시장 제조기지로서 **아프리카**는 **섬유·봉제** 등 유망분야 진출 촉진

방식 **온라인 수출**을 **3조원 이상**('16. 2조원)으로 확대하고,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**중소기업의 해외진출**도 적극 추진

○ **(온라인)** 온라인 수출기업 **전용자금**(200억원) 신설, 입점·마케팅·물류 등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판매 **전 주기 지원**, 국제규범 제정 적극 참여

○ **(동반진출) 대형 종합상사**와 해외진출 유통기업 등을 **전문 무역상사**로 지정하고, **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**

* 무역상사-중소기업간 매칭상담회 확대('16.14회→'17.20회) 및 무역보험 우대

체계 **민·관 합동 수출 총력체제** 가동

* 업종별·지역별·수출지원기관 대책회의, 수출종합 점검회의(매월)를 수시 개최

○ 중기청·관세청·코트라·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출기업 밀집 지역을 방문, 현장에서 애로를 해결하는 **'수출 카라반' 연중 수시 개최**

[2]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의 안정적 관리

핵심현안 관리 **트럼프 정부 출범**('17.1.20), **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** 등 **대외 리스크 요인에 적극 대응**

○ **(미국)** 新정부의 통상정책을 **예의주시**하면서 '**對美 통상협의회**'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

- 민간 차원의 활동, 고위급 인사 면담 등 **단계별 아웃리치**를 통해 **한·미 FTA의 호혜적 성과**를 집중 홍보
- **한·미 FTA**의 **충실한 이행노력**을 강화하고, 한·미 FTA 공동위원회(1.12),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**통상현안** 점검 및 **합리적 개선안** 마련
- 新정부 정책을 고려하여 **인프라 진출**(에너지시설 등), **제조업 투자 프로젝트 발굴** 등을 적극 추진하고, 셰일가스 등 **미국産 에너지 도입** 확대 검토

○ **(중국)** **한·중 FTA 이행위원회**, **對中 통상점검 T/F** 등을 통해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, 교역·투자장벽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대응

- 식품·화장품 등 **비관세장벽**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, **해상 간이통관** 확대, **전기안전분야 상호인정협정** 이행 등 협력사업도 확대
- **전기차 배터리** 등 현지 진출기업 애로도 적극 제기(산업장관회의, 국장급협의체 등)

보호무역 대응 민·관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**양자·다자 차원의 대응 강화**

○ **(대응체계) 수입규제협의회** 중심으로 '모니터링→정보공유→민·관 대응'을 강화하고, **비관세장벽·수입규제 DB**도 지속 개선하여 활용률 제고('17.상)

* 유관기관의 **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통합·연계**하고 정보 제공, 법률 컨설팅, 대응 상담 등을 원스톱 지원(**무역협회 '수입규제대응센터'** 확대 개편)

○ **(양자·다자 대응) 고위급 면담, FTA 이행위원회** 등의 계기에 관련 의제를 적극 제기하고, **G20·APEC** 등 다자기구에서 **공동대응** 논의 주도

* **ASEM 경제장관회의** 한국 개최('17.9월경) 계기에 보호무역 대응을 집중 의제화

新통상로드맵 보완 보호무역주의 확산, 다자통상체제 약화 등 통상환경변화를 반영하여 「**新통상로드맵**」 **업그레이드** 추진('17.3)

[3] 외국인투자 유치의 양적·질적 고도화

외국인투자 '17년에도 **고부가·신산업분야** 중심으로 **200억불 이상** 유치 추진

○ 美·中·EU·日 등 권역별 핵심 유치업종·기업 대상으로 **1:1 투자설명회**(IR)를 **상반기에 집중** 추진하고, **외투기업과 소통**을 확대하여 추가 투자 독려

* △일본(기계부품, 전기전자, '17.4), △북미(바이오헬스, 지역개발·관광레저, '17.5) 등
* 정례간담회 개최 : 외투 옴부즈만(매월) → 실·국장(분기) → 장관 주재 통합 간담회(반기)

○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프로그램 공급업 등 **28개 업종**의 **'진입장벽 영향평가' 실시** 등 **근본적 개편안* 마련**('17.상)

* (유치업종·대상) 제조업 → 주력산업 고도화 + 신산업 + 서비스업 중심
(인센티브 지원 기준) 투자 규모 → 경제 기여도 중심

유턴지원 대규모 **투자**와 **일자리**를 창출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**외국인투자 기업 수준**으로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 검토

* (예) 3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300명 이상 신규 고용시 세제·입지·고용·규제특례 등 지원

○ 3,500여개 **해외제조법인**(100만불 이상)을 **전수조사**, 유턴 의향기업을 적극 발굴

2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

[1] 신속한 구조조정 및 제조혁신

◇ **구조조정 이행현황을 매월 점검하고, 업황에 따라 보완대책도 마련**
(업종별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,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속 점검)

조선 조선 3社는 **10.3조원 자구계획** 중 잔여 **6.2조원**을 **신속 이행**하여 공급능력을 축소하고, 업황 부진시 자구계획 **규모 확대**

* ('16) 4.1조원 旣이행, 도크 3개 감축 → ('17~'18) 6.2조원 이행, 도크 4개 감축

○ **(수주절벽 대응)** 상반기 중 **1.5조원** 규모의 **군함**을 발주하고, **3.7조원 선박펀드 본격 집행** 및 지원대상에 **내항여객선 추가** 등으로 **新造 수요** 창출

○ **(친환경·서비스화) LNG추진선** 시범도입(4척), **해양플랜트 설계전문회사** 설립('17.1Q) 및 **선박 수리·개조업** 진출(2개社 이상) 등 고부가 전환

철강 **후판의 실질 생산능력 감축** 및 **판재류·강관의 사업재편**을 유도하고, 원료비 절감, 스마트제철소 구축을 통해 **전기로**의 **경쟁력 확충**

* '16년 공급과잉 해소 : 후판 180만톤, 강관 1.4만톤, 전기로 20만톤 설비 매각

석유화학 PS(폴리스티렌)·TPA(테레프탈산)는 **적정 수준**으로 **설비 감축**을 유도하고, NCC(기초원료설비) **대형화**와 **배관망 확충**을 통해 설비경쟁력 제고

* '16년 공급과잉 해소 : PS 5만톤 감축 → ABS 전환, 가성소다 20만톤 감축 → 가성칼륨 전환

◇ 조선 밀집지역 산업 활성화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

○ **(사업 다각화)** 조선기자재 업체가 **기계·에너지 등의 연관 업종**으로 신속 전환토록 R&D 등 **2,400억원** 집중 지원('17. 150개社)

* '16년 5개 업체가 「기업활력법」 사업재편 승인을 받아 발전기자재·엔진부품 등으로 전환

○ **(대체산업 육성)** 발전기자재·레저선박·해상풍력 등에 민·관 합동으로 **'17년 1.6조원, '20년까지 총 6.5조원** 투자

*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, 레저선박·자동차·항공, 기타 소재기계류 등

○ **(상시 현장지원)** 지역별로 **정부 합동지원팀**(산업부·고용부·중기청)을 구성하여 사업재편 컨설팅 및 애로해결을 **1:1 현장 맞춤형**으로 지원

○ **(위기대응시스템)** 특정산업 위기지역의 **경영안정**과 **지역산업구조 개선**을 종합 지원하는 **'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'** 제도 도입('17.상, 「균특법」 개정)

◇ 선제적 사업재편 및 업종전환 지원

과잉공급업종 「기업활력법」 활용 확대 및 지원강화를 통해 **선제적 사업재편** 촉진

○ 과잉공급 **제조업과 건설·유통** 등 **서비스업에서 「기업활력법」**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 금년 중 **40건 이상의 사업재편** 추진

* '16년 「기업활력법」 활용 성과 : 15건 (조선 5건, 철강 4건, 석유화학 3건, 기타 제조업 3건)

○ **금융·R&D·세제지원** 등 기존 지원대책을 **대폭 보강**

【 지원 보강 내역 】

❶ 금융	기존 재원(8.7조원) **外 우대보증**(기보, 1천억원) 신설, **전력신산업 펀드**(2조원) 신규 활용
❷ R&D	**산업부**(3.3조원)·**중기청**(9,479억원) **등 4.3조원 규모의 R&D 최우선 지원**
❸ 세제	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**적격합병 기준** 완화, 계열사간 M&A시 **양도차익 과세 납부기한 연장** 등

여타 업종 **잠재적 산업변화**가 예상되는 전자·기계부품 등 여타 업종도 **IoT가전·신재생** 등 고부가 분야로 **신속 전환**토록 **자금·마케팅** 등 집중 지원

* 전자·기계부품 경쟁력강화방안 마련('17.상), 사업전환촉진(1,250억원) 및 마케팅·컨설팅(216억원) 지원

◇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확산

보급 스마트공장을 **'16년 2,800개 → '17년 5,000개**(누적, 민관합동)로 **대폭 확대**

○ **(에너지신산업 연계)** 특히, **500개 기업에 대해서는 ESS** 등을 접목하여 **에너지효율**도 높이는 **'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'**으로 구축('17. 500개)

* ESS와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ICT를 활용하여 효율성·생산성 향상

○ **(대표공장) 벤치마킹**할 수 있도록 전기·전자분야에서 **1~2개 추가** 지정

○ **(데모공장)** 최고 수준의 스마트 제조기술이 집약된 데모공장을 구축하여 스마트공장 **실증 토대** 마련('17. 기계·전자라인 구축)

기반산업 육성 **R&D·인력** 등 **집중지원**을 통해 스마트공장 관련 **기반산업 육성**

○ **(R&D·인력)** 컨트롤러·센서·SW 등 **스마트공장 핵심기술을 개발**('17. 991억원)하고, **융합형 인재양성**을 위한 **석·박사과정** 신설('17. 3개) 추진

* 스마트공장 핵심기술 수준 : 선진국 대비 70~80% 수준

○ **(표준·보안)** 자동차 등 업종별 스마트공장 관련 **표준화·사이버보안대책** 마련('17.상)

[2]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가속화

◇ 산업별로 규제개선 등 4대 전략을 통해 조기성과 창출

□ 12대 신산업별로 ❶**규제개선**, ❷**집중지원**, ❸**융합플랫폼** 구축, ❹**초기시장 창출** 등 **4대 정책지원**을 **강화**

시스템 산업(7)	▸ 전기·자율차 ▸ 스마트·친환경 선박 ▸ IoT가전 ▸ 항공·드론 ▸ 로봇 ▸ 바이오 헬스 ▸ 프리미엄 소비재
소재부품 산업(4)	▸ 첨단 신소재 ▸ AR·VR ▸ 차세대 반도체 ▸ 차세대 디스플레이
에너지 산업(1)	▸ 에너지신산업(신재생에너지, ESS, 스마트미터 등)

○ 에너지신산업·IoT가전 등은 지난해 마련된 대책을 **구체화 및 지속 보완**하고, **차세대반도체·유통·3D 프린팅** 등은 새롭게 전략 수립('17.상)

○ **신산업리포트**(매월), **신산업 민관협의회**(매분기) 등을 통해 이행점검·보완

규제개선 **'네거티브 규제심사' 대상을 12대 신산업 전 분야로 확대**, 적기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ICT 등 **융합 신제품 인증기준 24종 개발**

집중지원 **R&D, 인력, 금융·세제** 등 지원 강화

○ **신산업분야 R&D투자를 확대**('16. 3.3 →'17. 3.7조원)하고, **연구자 이력관리제 도입** 등을 통해 R&D **생산성** 제고

○ 기업 주도형 산·학 협력으로 창의인재 **6,500명 양성**('21년까지 **3만명**)

○ **1조원** 규모 **'4차 산업혁명 선도펀드'** 운영, **신산업 육성세제**(최대 30% R&D 세액공제 등) 시행 및 OLED 등 **할당관세** 적용 확대(30→38개)

* **정책금융 85조원 및 산은 투·융자 프로그램**(20조원) 등도 우선 지원

융합 플랫폼 異업종기업,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혁신을 주도하는 **얼라이언스를 12개 신산업 전 분야로 확대**(9 → 12개)

○ 얼라이언스별로 도출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 우선 지원 추진

* ('17) 자동차-IT 융합형 프로젝트 착수 → ('18) 분야별 R&D 과제 지원

초기시장 창출 지자체·공공기관 **발주사업 연계 시장 창출방안** 마련('17.상), 전기차 **충전소 대폭 확충**(공용 급속충전기, 1,050→2,000기) 등 **시장창출 노력 강화**

○ **평창동계올림픽**을 **전기차, 수소차, 첨단 로봇** 등의 테스트베드 및 홍보 기회(Show Case)로 활용

* 전기차 300대, 수소차 25대, 수소전기버스 6대, 서비스로봇 50대 등 지원

◇ 우선적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

신재생 **규제개선**과 **인센티브** 등 집중지원으로 **세계 최고 보급기반** 구축

○ **'투자애로 전담반'*** 운영을 통해 프로젝트 **걸림돌**을 **전수조사·해결**하고, **지자체와도 상시적인 규제개선 협력채널**** 구축

* 신재생('17.1) 우선 실시후 ESS·스마트미터로 확대, 未해결 규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상정·해결

** 정부와 지자체간 '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및 성과확산 협의회' 구성·운영('17.1Q)

○ **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** 도입으로 안정적 수익 확보 지원

* 발전공기업이 신재생전력 구매시 '전력판매가격(SMP)+신재생인증서(REC)' 구매 의무화(20년 내외)

○ **주민 참여형 프로젝트** 활성화 및 **주택·학교·농촌 태양광** 집중 보급

* 농촌 태양광 '20년까지 1만호 건설, '17년 1,000호(재정+민자) → 농가소득 증진, 신재생 보급 확대

○ 서남해 해상풍력(60MW), 영광풍력(80MW) 등 성공사례를 창출하고, **'신재생 발전+에너지저장**(ESS)**+O&M'** 패키지형 수출 확대('16. 50억불 → '17. 75억불)

* 한전의 전력신산업펀드(2조원)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유망 프로젝트 발굴·지원

ESS **1월부터 요금할인 특례**를 시행하고 **유통·물류, 산업단지** 등 新수요처 발굴

* 경부하 충전요금 할인 확대(10%→50%), ESS용량에 따라 요금할인 차등지원(최대 20% 추가할인)

○ **고밀도·대용량 배터리** 등 ESS 핵심기술도 개발('16. 303억원 → '17. 437억원)

스마트 미터 **'17년**에 **450만기**를 설치하고, 당초 **목표보다 2년** 앞당겨 **'20년**까지 **2,200만 전기 소비자** 전체에 **보급 완료**

* 보급실적 및 계획(만호) : ('13~'16) 280 → ('17) 450 → ('18) 400 → ('19) 520 → ('20) 550

○ 공공기관(한전, 에공단) **에너지 빅데이터**를 **민간에 개방**하여 新비즈니스 확산

○ **중동** 등에 **IoT 기반**의 **전력·가스 스마트미터 수출** 확대

* 이란 테헤란 지역 전력AMI(600호)·가스AMI(5,000호), 호르무즈섬 전력AMI(2,000호) 구축

차세대 발전 청정화력 등 **고효율·친환경 발전기술** 개발 가속화

* 대형 가스터빈(250MW, ~'18), 석탄화력 효율향상(500MW, ~'19), 초초임계압(USC) 화력발전 실증(~'17) 등

◇ 융합 신제품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 대폭 강화

○ **(융합 신제품)** 개인용 이동수단('17.3), 드론('17.하) 등 **융복합 신제품**에 대해 **선제적**으로 **안전기준과 안전관리 전략*** 마련('17.상)

* 빅데이터 기반 위해제품 조기차단 시스템 구축, IoT 제품 등의 안전관리 등

○ **(여타 제품) 여타 非안전관리제품** 등에 대해서도 **안전관리** 체계 구축

- 대형 **유통채널內** 50만개 제품에 대한 **전수조사**(2개社)*를 실시하고, **'범부처 제품안전 정책협의회'**를 통해 **안전관리 대책**** 마련('17.하)

* 온라인쇼핑몰(11번가) 및 오프라인 매장(이마트)의 50여만건 등록 제품

** 전수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품목군·신종 위해제품별 담당부처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 등

○ **(제도개선)** 제품안전관리를 전담하는 **「제품안전관리원*」**을 신규 설립('17.상)하고, 자발적 리콜 확대 등 **리콜제도 전면 개편** 추진('17.상)

* 국내·외 위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, 안전 인증 획기적 개선 등

3 중소·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 제고

중소·중견 성장사다리 **기업단계별**(수출초보→유망→강소→선도기업) **특성**을 고려하여, '**보호**'에서 '**성과**' 중심으로 **맞춤형 지원 강화**

○ (**판로**) **중소기업 우수 혁신제품 DB**(3천개)를 구축하고, 이를 **공영 홈쇼핑, 민간 유통채널** 등과 연계하여 판매 촉진 지원

○ (**R&D**) 창업·초보기업→혁신기업→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**기업성장 촉진**과 **산학연 협력** 등에 **총 9,479억원** 지원

* 기업성장 R&D : 창업·초보기업(2,369억원)→혁신형기업(2,900억원)→중견기업(1,228억원) 대학·연구기관 협력 R&D(1,308억원), 기업간 협력 R&D(1,674억원)

○ (**자금**) 중소기업 **정책금융을 103조원***('16. 97조원)으로 확대하고, 정책자금 금리인하('16.하, 2.47% → '17.1Q, 2.3%)도 추진

* 정책자금 3.6조원, 신보 43조원, 기보 20조원, 지역신보 18조원, 매출채권보험 18조원

○ (**인력**) 기업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'**미래성과공유제**'를 도입하고, 핵심 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'**내일채움공제**' 가입자 확대(1.9 → 5.7만명)

- '17년에 권고 만료되는 **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**(전통떡, 청국장, 두부 등 13개)에 대한 **지원 및 대형 유통점과 상생 방안 강구**('17.6)

○ (**전통시장**) 문화·관광 등과 연계한 **시장별 특성화,** 편리한 **쇼핑 환경 조성** 등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지원 확대('16. 3,210억원 → '17. 3,452억원)

- 디자인 접목 등을 통한 **특성화 시장 96개를 신규 지정**·지원(566억원)하고, 유휴점포를 활용하여 문화·체험·쇼핑이 결합된 **복합 청년몰을 조성**(17개)

* 문화관광형 시장 31개, 지역선도형 시장 6개, 골목형 시장 59개

- 시설 현대화(285개 시장, 754억원) 및 **주차환경 개선**(110개 시장, 998억원) 추진

- **코리아세일페스타**에 **전통시장 참여 확대**('16. 405개 → 500개 이상)

○ (**영세상점가**) 「**자율상권법**」을 제정하여 민간조합 주도의 구도심 상권 개발 시 환경·시설정비 지원(연 5곳)

- '**상권 내몰림 방지 가이드라인**' 마련('17.8, 중기청), **전용 지원 프로그램** 도입

○ (**히든챔피언**) R&D 투자비중 등을 고려한 **5,400여개 히든챔피언 후보군**(글로벌 강소기업, WC 300 후보군 등)을 **선별·집중 지원**

* 중견기업 전용 R&D·마케팅 지원 신설('17. 160억원), 산은 금융지원(2.5조원) 등

소상공인 전통시장 **소상공인, 전통시장, 영세상점가**의 **자생력 제고 지원 강화**

○ (**소상공인**) 창업-성장-재기 전 주기에 걸쳐 **1.62조원 지원**('16. 1.55조원)

- 창업과밀지수 등 정확한 **상권정보*를 제공**하여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(연 450명) 등을 통해 유망업종 중심의 **준비된 창업** 촉진

* 유동인구, 임대 시세, 업종 창·폐업 추이, 창업예정 점포의 개·폐업 이력, 예상 매출 등

- **전문기술 교육 확대**(7,000명 → 8,000명), **경영 컨설팅** 제공(5,000건), 협동조합 활성화(연간 400개) 및 해외진출 지원(120개 조합) 등 성장 지원

- **한계 소상공인 1만명**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업종전환 등 재기 지원(100억원)

4 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

◈ '**17년** 민·관 합동으로 **총 29.4조원 투자** ('16년 대비 +3.9조원 / +15.3%)

* **에너지 신산업**	('16) 11조원	→	**('17) 13.8조원**
* **에너지 안전**	('16) 8.2조원	→	**('17) 8.4조원**
* **기타**(설비 신증설 등)	('16) 6.2조원	→	**('17) 7.2조원**

[1] 원전 등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 대폭 강화

원전 **모든 부지**의 **안전성 점검,** 가동 원전 핵심설비의 **내진성능 보강** (0.2g → 0.3g, ~'18.상) 등 내진안전 **세부 이행계획** 수립·추진('17.1~)

* 핵심설비 내진성능(규모) : 가동원전 0.3g(7.0), 신규 건설원전 0.5g(7.4), 장기적 R&D 추진 0.6g(7.5)

○ **원전 부지 內**에 **복합재난대응센터**('17~'20) **설립** 착수, 주민들에게 **대피 요령** 등을 **교육**하는 **체험시설** 건립도 추진('17)

기타 시설 전력·석유·가스 시설의 **내진기준을 일괄정비***하고, 지진 발생시에도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 가능한 **비상공급 시스템 강화**

* 핵심시설(0.3g), 일반시설(0.2g), 기타시설(0.15g) 등 3단계로 차등 관리

○ **노후시설**과 **주거지 인접 대형시설**을 우선으로 단계적 **내진성능 보강**(~'18)

○ **LNG기지** 내 생산·저장 **공장 분리** 등 에너지원별 **비상공급계획 보강**('17.상)

사이버 보안

원전·가스저장소·발전소 등 **주요 에너지시설**(11개 공공기관)의 **해킹 대응체제**를 대폭 보강하고, **정보보안 인력·예산**도 지속 확대

* 사이버 보안 인력 : ('16) 320명 → ('17) 414명 / 예산 : ('16) 843억원 → ('17) 1,110억원

○ **사이버 보안 특별점검**('17.상), **해킹메일 발송훈련**(연 3회) 등을 실시하고, 문서유출 방지 및 **해킹 차단 시스템**의 **업그레이드** 추진

취약층 안전

전통시장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

○ **전통시장** 내 **점포 5.5만개**에 대해 **전기·가스 안전점검** 및 **시설 교체** 추진 (중기청 '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' 활용, '17. 745억원)

○ 지역아동센터('17. 350개)와 서민층 가구('17. 5만호)에 노후 **전기·가스 설비 개선 지원**, 고령자 가구('17. 6.5만호)에 **자동 가스차단기 보급**

[2]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

중장기 대책 마련

新기후체제, 유가변동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의 **친환경적 생산**을 **지속 확대**하는 **중장기 수급 안정대책 마련**

○ (**전력**) 「**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**('17~'31)」을 수립하고, 석탄발전 환경설비 보강, 효율향상 등 **친환경 발전**을 위해 **'30년까지 11.6조원** 투자('17. 1,951억원)

○ (**석유·가스**) **미국産 셰일가스 수입, 석유비축 확대** 등 안정공급 기반 마련

- 「**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**('17~'31)」 **수립**, 「**제4차 석유비축계획**(14~'25)」 조정

효율적 소비

산업·수송·공공 등 **부문별 특화된 에너지 소비 효율화 강화**

○ (**산업**) **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지원 지속**('17. 3,500억원) 및 에너지효율 1등급 비중이 **30%를 넘는 품목**(냉장고, 공기청정기 등)의 **효율기준 상향**

○ (**수송**) 소방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 **3.5톤 이상 중대형 차량**(186만대)으로 **연비표시 대상 확대**(現 3.5톤 미만 의무화)

○ (**공공**) 연면적 1만㎡이상 신축 공공건물 **BEMS**(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) **의무화**('17.1월)

자원개발

자원개발 공기업은 **고강도 구조조정**을 통해 **영업이익 흑자 전환 등 성과 창출**, 정부도 출자를 통해 **구조조정 적극지원**

* '17년중 구조조정 이행계획 : 투자조정 3.4조원, 자산매각 1.3조원, 경비절감 963억원
해외자원개발 공기업 출자 : 석유공사 223억원, 광물공사 300억원

○ 탐사 프로젝트 **특별융자**(1,000억원) **집중지원**, **법인세 감면** 추진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**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투자 활성화**

제도개선

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**에너지원별 제도개선 추진**

○ (**전력**) **전기구입비 연동제*** **도입**을 위해 '17년 중 **국제 컨설팅 추진**, **신재생 전력 직접판매 및 중개 서비스 허용**(「전기사업법」 개정)

* 전기요금을 전기구입비에 연동시켜 원가 변동요인을 요금에 적시 반영하는 제도

○ (**가스**) 직수입자간 **가스매매 제한적 허용**(도시가스법시행령 개정), 천연가스 **배관이용 벌과금 간소화 등 이용불편 해소**('17.상)

○ (**원전**) **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** 선정을 위한 「**고준위 관리절차법**」 제정 추진('17.상)

[3] 에너지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

□ 에너지복지 **수급대상 및 지원수준을 지속 확대**

○ (**에너지 바우처**) 현행 수급대상 가구 확대를 지속 검토하고,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연계하여 지원단가도 상향(가구당 평균 10.8만원 → 11.6만원)

* 연탄쿠폰, 등유 바우처 포함

○ (**주택개선**)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(연 3만 가구) **지원단가 상향을** 검토하고, **연료전환**(연탄 → 가스·석유)시 **보일러 교체 신규 지원**

○ (**전기요금 할인**) 장애인·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**전기요금 할인 혜택**을 **2배 수준**으로 확대

* 장애인·기초 수급자 등(월 8,000 → 16,000원), 차상위계층(월 2,000 → 8,000원)

□ 저소득 가구 **실태조사**('17.6)를 토대로 **지원대상 추가 확대** 검토

Ⅲ. 기대 효과

◇ 수출 5,100억불 이상 달성



◇ 12대 신산업 일자리 3만개 창출



◇ 중소 · 중견기업, 소상공인 활력 제고



◇ 에너지안전 강화 및 친환경 발전 확대



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

산업부는

“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,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.” 는

봉산개도 우수가교(逢山開道 遇水架橋)의 자세로

❶ 통상현안 적극 대응 등을 통한 수출 플러스 기조 정착

❷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

❸ 중소·중견기업, 소상공인 활력 제고

❹ 에너지안전과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을

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